

출판동네

Publishing News

참석인원 : 200여 명(출판인 : 170명, 외부인사 : 30명)

신청 기한 : 2006. 6. 10(토)까지

접수 및 문의 :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 회원지원부 신윤수 대리, 김
인기 차장(02-737-7942, 02-735-2701)

출현, 두 번째 대형펼침막 설치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독서진흥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두 번째 대형펼침막(12.2m×10.3m)을 출판문화회관 외벽에 설치했다. '책을 읽으면 행복합니다'를 메인카피로 한, 첫 번째 대형펼침막에 이어 이번에는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완을 모델로 하여 '왜 사냐고 묻는다/잘 살라고 답한다/책이 인생을 묻고 답한다'라는 문구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번 대형펼침막은 오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06서울국제도서전의 홍보도 겸하고 있다.

출현, 제27회 출판경영자세미나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제27회 출판경영자 세미나를 6월 22일(목)부터 6월 24일(토)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다매체시대, 독서진흥이 문화 강국을 만든다'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책읽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독서 진흥의 활로를 개척하고, 편집 및 디자인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출판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정일 책임이사화만들기국민운동 상임대표의 '책읽는 인간 탐구 - 상상력과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라는 기조특강을 시작으로, '사이버공간 정보 편집 능력과 독서' (탁석산 저술가·전 KBS TV 책을 말한다) 진행자, '출판 브랜드 연구 - 출판디자인은 곧 이야기다' (이 니미 디자이너·〈바프〉대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일시 : 2006. 6. 22(목)~6. 24(토)

장소 : 제주도 서귀포 하얏트(HYATT) 호텔

참가비 : 400,000 원

문화부 2006 문화산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006년도 문화산업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2005 문화산업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우리나라 문화산업 주요 정책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 문화산업의 현황 및 전망, 향후 사업계획 등을 담아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년도 정책방향을 개괄한 '제5장 2006년도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에서는 2006년도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2010년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한류 확산 및 해외 마케팅 강화, 투자·유통 구조 혁신으로 선진 시장 구조 정착,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시스템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함을 밝히고 있다.

《2005 문화산업백서》는 문화관광부가 매년 문화산업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발간하는 정책 자료집으로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출판연구소 등의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펴내고 있다.

《2005 문화산업백서》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 도서관, 문화산업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거나 시중 서점 정부간행물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화부, 중국 판권료와 저작권 교류 양해각서 체결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지난 5월 18일 중국 심천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 룽신민(龍新民))과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명곤 장관은 심천에서 개최되는 '중국국제문화산업박람회'에 참석 한 후, 양국간 문화산업 교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 선결조건으로 간주되어 오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간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체계 구



“왜 사냐고 묻는다
잘 살라고 답한다
책이 인생을 묻고 답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독서진흥 캠페인의 일환으로
출판문화회관 외벽에 설치한
대형펼침막)

축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저작권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정보 교환, 저작권 담당 국장급 협의회 개최, 양국 저작권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인적 교류 등으로 이를 통해 양국 저작권 전 분야에서 다면적인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양해각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3년간 유효하지만,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출판저널》 박신우 사진기자, 작가의 방 사진전

작가의 속살이 공개됐다. 강은교 공지영 김영하 김용택 신경숙 이문열 등 우리 시대 대표작가 6인의 집필공간을 보여주는 사진전 '작가의 방'이 서울 종로구 서간동 유갈리에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린다. 《출판저널》 사진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신우 씨가 박래부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과 함께 약 1년간 작가들의 집필공간을 방문하면서 작가들의 일상과 습관, 그리고 작품의 모태가 된 추억의 흔적들을 사진 20여 점에 담았다. 박 씨가 찍은 사진은 박래부 논설위원의 글과 안희원의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책 《작가의 방》(사해문집)으로도 출간됐다.

한국출판연구소, 제43회 출판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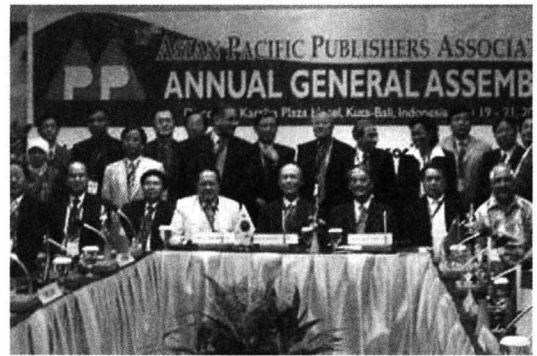
한국출판연구소는 6월 2일 오후 4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서 본문검색 서비스의 좌표'를 주제로 제43회 출판포럼을 개최한다. 2006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네이버, 교보문고, 북토피아 등 본문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의 사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학동네작가상에 이경륜 씨

제11회 문학동네작가상에 이상운의 장편소설 《내 머릿속의 개들》이 선정됐다.

경북 포항 출신으로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한 이씨는 1997년 장편소설 《픽션클럽》으로 대산창작기금을 받으며 등단한 뒤 소설집 《달마의 앞치마》, 장편소설 《탱고》《누가 그녀를 보았는가》《내 마음의 태풍》 등을 발표했다. 수상 작가에게는 상패와 고료 2,000만 원이 지급되며 시상식은 12월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문학동네 출판사는 올해부터 소설상, 작가상, 신인상의 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소설상은 종전의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작가상은 1,000



만 원에서 2,000만원, 신인상은 소설·시·평론 부분을 각각 1,000만 원(중전 500만원), 500만 원(200만원), 500만 원(300만원)으로 인상했다.

APPIA 회장에 나춘호 예림당 대표 재선출

나춘호 예림당 대표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06년도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2000년 베이징 총회에서 처음 선출된 나 회장은 이번 재선출로 네 차례 연속 회장직을 맡게 됐다.

대중문학작가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결성

무협, 판타지 소설 등을 쓰는 대중문학작가들이 처음으로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대중문학 권리찾기'에 나선다. 지난 5월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한문협) 결성식을 가진 대중문학작가 400여 명은 앞으로 '대중문학에 대한 인식 바꾸기' '정부 지원 확보'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초대회회장으로는 무협작가 금강(본명 김환철·50)이 내정됐다. 금강은 한국 무협소설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1989년 일반 서점에서 판매된 무협소설 《발해의 혼》(전 3권)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영상위원회, 제1회 경기영상창작지원프로그램

경기영상위원회는 영화·영상관련 인재를 발굴·지원하여 경기도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제1회 경기영상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기 영화시나리오 공모전', '경기 독립영화 제작지원', '경기 영상 출판지원' 등이다. 이 중 경기 영상 출판지원의 경우 신청요건은 영상문화 전반 및 영화이론, 영화사, 영상 기술 관련 자유 주제로 저서 및 역서 포함해 2006년 내 출판이 가능한 서적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해당 분야 연구자와 출판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총 1,800만원(저·역자와 출판사에 각 600만원 및 300만원 지원(2편), 출판사 지원은 서적 구매 방식이 지원된다.

응모접수기간 : 2006. 6. 26(월)~6. 30(금) 18:00 5일간(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ic.or.kr)를 참조하거나 영상사업팀(032-223-1064 / ilufuu@ggic.or.kr)에 문의 바람

문화헌장제정위원회 (문화헌장) 공표식

문화헌장제정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문화 예술단체, 정부부처 및 관련 산하 기구, 시민단체, 여성·이주 노동자·장애인·동성애 단체, 지역 문화 단체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헌장〉 공표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헌장 제정 사상 최초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문화헌장〉은 시민사회문화단체들과 학계 및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헌장제정위원회가 문안 내용을 만들었고, 수차례 걸친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 측에서는 헌장 내용 작성에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사무지원의 제공과 기타의 방식으로 헌장 제정에 동참했다.

〈문화헌장〉은 지금까지의 국가 헌장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영역과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문화적 원칙과 가치들을 천명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문화적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다.

〈문화헌장〉의 구성은 문화헌장 전문을 비롯해, 제 1항 기본권리, 제 2항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제 3항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제 4항 다양성의 원칙, 제 5항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제 6항 문화유산, 제 7항 지역문화, 제 8항 예술과 학문, 제 9항 문화산업, 제 10항 문화와 경제발전, 제 11항 문화와 민주주의, 제 12항 국가의 책무 (가) 문화권리 보장의 책무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 (다) 제휴협력의 원칙, 제 13항 실행의 약속 등으로 되어 있다.

세계의 만화 컬렉션전(6.1~13) :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절의 드문 만화컬렉션(Little Annie Fanny, Poebe Zeit Geist, Barbabrellam ZAP Comix, T. Ungerer, Lou Meyers), 150여 점
폴란드의 포스터전(6.14~27) : 주한 폴란드 대사관 소장품 예술포스터 50여점
예술오브제로서의 책 전(6.28~7.11) : 작가 김구림(설치, 판화), 조성묵(설치, 조각)의 책을 소재로 한 2인 미술작품전
문의 : 737-328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5월 25(목)~26(금), 남이섬 호텔에서 독서단체(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06 독서단체(기관) 관련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2006 독서단체(기관) 관련자 초청 워크숍'은 국내 독서단체(기관) 관계자들이 그동안의 독서진흥운동 사례와 방법 및

헌장에서 느낀 경험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책 읽는 사회 구현을 모색하는 등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독서진흥과 독서관련 단체 네트워크'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될 이번 '2006 독서단체(기관) 관련자 초청 워크숍'은 엄정식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이만수(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독서문화연구소 소장), 김수현(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사무관)의 주제발표와 오혜자(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 중부지부장, 초롱이네 도서관 관장)의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0세기 전쟁기념의 비교문화사〉 제1차 국제학술대회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소장 임지현) '20세기 전쟁기념의 비교문화사' 연구팀(연구책임자 전진성은)은 지난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이틀 '전쟁기념 담론의 구성과 성격 공적 담론에서 제도교육까지'라는 주제로 제1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05년 9월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 심화연구 부문 지원을 받아 3년 간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은 1차년도에는 전쟁기념에 대한 공적 담론, 2차년도에는 다양한 문화적 매체, 3차년도에는 대안적 전쟁기념문화의 모색을 중점으로 삼아 공동연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술회의 230주년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는 개교 60주년과 규장각 창설 230주년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 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21세기 한국학의 진로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지에서 한국학을 연구중인 학자들 다수가 참여, 한국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또한 규장각을 비롯한 조선 후기 사회의 지식 정보의 흐름도 되짚어 본다.

이번 학술회의는 5월 31일 '규장각과 동아시아 지식세계', 6월 1일 '한국학 연구의 지원체계와 활동' 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과제', 6월 2일 '탈식민지시대의 한국학의 세계화와 동아시아 지역학' 등 5가지 세션과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중연 브라질 교과서 전문가 연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이길상)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브라질 교과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문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한중연이 실시한 중남미 4개국 교과서 오류시정활동의 후속 사업으로 이번 방문단은 브라질 전역에서 점유율 1,2위를 자랑하는 교과서 출판사와 교과서를 자체 제작하는 사립고교 편집자들이다. 한중연은 이들의 방한 기간에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브라질 이미지'를 주제로 교과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관련내용의 서술 실태를 살피고 오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역사지구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사건의 시간, 시작문학상 제정

천년의시작(대표 김태석) 출판사와 계간 〈시작(詩作)〉이 '시작문학상'을

제정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발간된 시집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해 상금 1,000만 원을 준다. 수상작은 내년 2월 계간 〈시작〉 봉호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내년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 문학상 공고

전태일기념사업회는 7월 31일까지 제15회 전태일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모집 부문은 시, 소설, 생활글 등으로 당선작에는 모두 6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이와 함께 6월 20일까지 제2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작품도 공모한다. 모집부문은 시, 소설, 생활글, 독후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회 홈페이지(www.chuntaeil.org) 참조. 문의 02-3672-4138

샌더, 작가 정채봉 전집 발간

도서출판 샌더는 2001년 지병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동화작가 정채봉(1946~2001) 전집 1차분을 출간했다. 시·소설·에세이·동화 등이 포함된 전집은 정채봉 문학을 정리·집대성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30종 33권으로 전집을 완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된 것은 스무 살 나이에 자신을 넣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스무 살 어머니〉 간암 투병 생활을 하며 얻은 깨달음을 담은 〈눈을 감고 보는 길〉,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담은 〈그대 뒷모습〉 등 수필집 다섯 권을 포함해 자전적 장편소설로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의 성장과정을 사회상과 함께 담은 〈초승달과 밤배〉, 그리고 작가가 남긴 유일한 시집 〈너를 생각한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등 8종 9권이다. 이번 전집은 정채봉의 작품을 장르와 주제별로 정리한 것으로 작가가 남긴 문학의 향취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전지출판학회 정기 학술 발표회

한국전자출판학회와 한국콘텐츠출판학회는 지난 5월 27일 사간동 출판문화관에서 2006년 정기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출판통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미디어 환경에 따른 출판문화의 구술성에 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회에 이어 이기성 개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교수의 회갑기념 논문집인 〈출판논총 3집〉의 봉정식이 열렸다.

한국문화번역원 해외출판마케팅협의회 간담회 개최

한국문화번역원(원장 유지관)은 지난 5월 30일 한국국제교유재단 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국내 주요 아동 출판사 저작권 수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출판마케팅 협의체 아동 도서 출판사 임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06 마케팅협의체 계속사업 설명과 아동 도서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 수렴 등이 이루어졌다. 번역원은 올해 전문적인 출판마케팅 전략 운영으로 한국도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출판 유통망 편입을 통한 한국도서 수출 체질 강화를 위해 ▲샘플 번역 지원 ▲출판 섭외 지원 ▲수출용 도서의 영문 초록 제작 및 배포 ▲마케팅 행사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번역원은 2006년 6월 현재 초록 번역 38건, 샘플 번역 14건, 출판섭외 1건, 마케팅행사 개최 1건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니체학회 '니체전집 완간 발표자담 개최'

한국니체학회와 책세상 '니체전집' 완간을 기념해 6월 3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 이벤트홀에서 '왜 우리는 지금 니체를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니체학회 이진우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현대의 철학, 문학, 사회에 끼친 니체의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 한국인에게 니체는 어떤 의미인가를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위원회 선정 2/4분기 우수문학도서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와 문화나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도정일)는 지난 5월 29일 강연교 시집 〈초록 거미의 사랑〉 등 70권 70종을 2·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다. 2·4분기 우수문학도서는 시집 25종을 비롯해 강정규의 〈선〉 등 소설집 20종, 김남중의 〈들소의 꿈〉 등 아동·청소년문학 10종, 문운정의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줌〉 등 수필집 7종, 구모룡의 〈시의 옹호〉 등 평론집 7종, 김명화의 희곡집 〈카페 신파〉 등이 선정됐다. 2006년도 2/4분기 우수문학도서 선정위원회는 신달자 이경림 남송우 이원규 박정대(이상 시), 이동하 이해경 한창훈 양진우 김연수(이상 소설), 이재복 남찬숙(이상 아동·청소년문학), 염정임 원재훈(이상 수필), 김인환 김재용(이상 평론·희곡) 등 각 장르 전문가 16명이 맡았다. 올해부터 신예작가 첫 작품집을 10%, 지역출판사 간행 문학도서를 5%씩 할당하기로 한 데 따라 2·4분기 우수문학도서 중 신예작가 첫 작품집은 김승강의 〈흑백다방〉 등 19종(27%), 지역출판사 간행도서는 박강우의 〈병든 맹우새를 먹어보렴〉 등 5종(7%)을 선정했다. 예술위와 추진위는 이번에 선정된 42개 출판사의 책을 권당 2천부(평론은 1천부) 구입해 공공도서관, 교정시설, 복지시설,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낸다. 자세한 내용은 추진위 홈페이지(www.for-munh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